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3/ 11/ 22 통권 1650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CEO 에세이 - 이해의원장

CEO의 문화사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상세본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월합계세금계산서는 같은 달 1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의 거래기간 단위로만 발급가능함
-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복귀하면서 국내 사업장을 신설한 후 해외사업장 축소 완료하거나 기존 국내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도 세액감면 적용됨 (p.12)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戰略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등〉

개념구분	과세방법 개요, 비과세 요건 등, 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	① 거주자 + 배우자가 같은 주소에서 생계공유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과 ② 1주택을 2년 보유숙 2년 거주하면, 1세대 1주택(거래가 12억원 한도)으로 양도세 비과세
1세대의 판단	생계공유가족임(단 ① 가족 중 나이 30세 이상, ② 배우자 사망·이혼, ③ 중위소득의 40% 이상인 거주자의 경우 별도의 세대로 봄)
한집 2세대	부모 집에 거주하는 자녀세대가 별도 1주택 소유시 생계공유하면,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 안되지만, 각각 독립된 생계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각각 판단함
보유·거주	보유기간 2년 이상 기간에 거주기간 2년 이상(임대주택은 5년 보유, 취학·근무이전·질병 등은 1년 이상, 해외출국인 경우 거주기간 없고 출국일부터 2년 내 양도)
주거이전 2주택	이사목적 집 사고 팔기(기존주택 1년 이상 후 신규취득 + 신규취득 일부터 3년 내 기존주택 처분)
상속된 1주택	상속 1주택은 기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영향 없음. 상속 2주택이면 과세
동거봉양합가	1세대주가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하면, 합가일부터 10년 내 양도는 비과세
결혼합가	각 1주택자끼리 결혼시 결혼일부터 5년 내 먼저 양도는 비과세
문화재 주택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주택은 기존 1주택 비과세에 영향 없음
농어촌 주택	읍·면 지역의 농어촌주택은 기존 1주택 비과세에 영향 없음
귀농·이농	5년 이상 거주한 이농주택, 영농·영어 목적주택은 기존 1주택 비과세에 영향 없음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박윤중공인회계사작성)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전조세정보
02-829-7575

주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650호 / 주간 47호

2023. 11. 22. (수)

·발 행 인:이윤선
·제 작:(주)안건조세정보
·대표전화:(02) 829-7575
FAX:(02) 718-8565

목 차

-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 02) 829 - 7575
팩스 :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 051) 642 - 3988
팩스 :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 053) 654 - 9761
팩스 :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 010) 3409 - 2427
팩스 :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 010) 5255 - 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등	표지
C E O 에 세 이	CEO의 문화사랑	2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판매 장려금 회계처리와 원천징수 - 간이영수증 처리 관련 - IoT(사물인터넷) 자산성 여부 - 특수관계인(법인)에게 차량 매각시 문의 사항 - 중소기업법 및 법인세법상 중소기업 기준 문의	4 5
눈에맞는 절세미인	월합계세금계산서는 같은 달 1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의 거래기간 단위로 만 발급가능함	6
매일 절세재무요점	- 현행 주식 양도세 대상 대주주 요건 - 연말정산 때 놓치기 쉬운 공제 제도	8 9
직장인 Survival	자신에 대한 믿음 없이는 시작도 하지 마라	10
최신 판례예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납세자가 고의(임의)로 손익귀속시기를 조정하고 이를 과세관청이 경정 한 경우 납세자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 (기준법무기본-93, 2023.03.0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이하 “개인영농”)을 「법인세법」을 적용받 는 영농으로 법인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그 법 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영농으로서 영농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사전법규재산-922, 2022.12.06)	11 12
세정뉴스와 해설	‘K-칩스법’ 중소기업보다 저세율... 감면액도 연간 3조원 넘어	13
마케팅 Tax consulting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복귀하면서 국내 사업장을 신설한 후 해외사업장 축소 완료하거나 기존 국내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도 세액감면 적용됨	12
세무정보	-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14
회계정보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45
세무환율정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 환율	3

CEO의 문화사랑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외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서예가 일중(一中)김충현 선생님께서는 아름다운 글씨로 크게 기여하셨기에 존경을 한 몸에 받으셨고 또 많은 제자를 거느리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필자의 누님이 선생님의 문중으로 시집갔습니다. 그러니 그는 사돈어른이기도 합니다. 또 그의 아들 김재년 코리아에어텍 대표는 필자와 자별한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후배이기도 합니다.

선생님은 1938년 18세 나이로 조선 남녀학생 작품전에서 최고상을 받으면서 일찍부터 서예계에서 이름을 떨쳤습니다. 소전(素田) 손재형 선생님과 나란히 한국 서예계를 이끄신 분이셨습니다.

두 분을 비롯하여 서예 5대가로 꼽히던 원곡 김기승과 겸여 유희강도 세상을 하직하셨고 여초 김응현도 소천하였으니 애석하기 그지없는 노릇입니다.

여초는 일중의 형제분으로 백야 김창현과 함께 일중문중의 서가 삼현(書家三顯)이라 칭송할 수 있습니다.

필자의 중학생 시절 선생님을 스승으로 모시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선생님은 서예 뿐만 아니라 한자와 문장에 통달하셨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께서 필자에게 국전출품을 권유하셨습니다. 마음속으로 떨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의 출품권유를 받는다는 것은 국전에 바로 합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전출품은 애석하게도 좌절되었습니다. 아쉽지만 “선비로서 시서화를 사랑하면 됐지, 그것으로 이름을 얻거나 업으로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선친의 방침 때문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그것도 참 멋진 일일세.”하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돈과 바꾸지 않는 특기를 하나쯤 숨기고 사는 게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대 경영대학 앞 큰 표지석에 경영대학이라는 한문 글씨는 필자가 모교에 흔적을 남긴 것이기에 늘 애착이 가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동아리 문우회에서 당시 대학원생 성공회대 신영복 명예교수와의 만남은 아무래도 기연이었습니다. 둘은 모두 시서화를 사랑했습니다.

널리 알려진 바대로 신영복 교수는 통혁당 사건으로 감옥생활 20년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옥중서체’를 가다듬었습니다. 막막한 무기수의 호트러짐을 서예로 경영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사랑하는 소주 ‘처음처럼’은 그가 쓴 민중의 서체입니다.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말하는 ‘연대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여년 전 개혁개방과 함께 중국의 이곳저곳을 다니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바다와 같은 서예의 세상을 만나서 깊이 감동을 받곤 했습니다. 법을 깨고도 법이 흐르는 수많은 글씨를 보고 가슴이 뛰곤 했습니다. 시골 구멍가게 기둥의 글씨조차도 잠시 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5000년간 내려오며 녹여진 문화의 힘을 느꼈습니다. 이런 문화적 감동의 마음자세로 그들을 대하니 술대접하면서 의도적으로 판시를 만들지 않아도 중국인과 깊은 교유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비즈니스 협상이 꼬일 때 그들 문화에 대하여 얘기를 나누다보면 협상의 활로가 의외로 확 트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래전 헝가리 부다페스트 근교의 성주(城主)와의 비즈니스도 문화미팅이 열리면서 물꼬가 트인 기억이 생생합니다. 항거리가 6명의 노벨화학상을 받은 제약기술의 강국이라는 사실을 장거리 비행시 공부해서 알았습니다. 그런 화제를 꺼냄으로서 우리는 비즈니스를 성공시킬 수 있었습니다.

21세기 경영은 문화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CEO는 문화를 이해하고 가까이 할 때 비로소 차원 높은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제품 디자인에서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경영과 문화는 이제 동전의 앞뒤입니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11월 10일 (금)	11월 13일 (월)	11월 14일 (화)	11월 15일 (수)	11월 16일 (목)
미	달	러	(USD)	1309.00	1316.70	1322.70	1325.30	1302.00
일	본	엔	(JPY)	864.94	869.22	872.12	881.07	860.66
영	국	파	운 드	(GBP)	1599.60	1610.13	1624.34	1656.23
캐	나	다	달 러	(CAD)	947.76	954.23	958.13	967.76
홍	콩	달	러	(HKD)	167.62	168.57	169.40	169.78
중	국	원	(CNH)	179.36	180.30	181.20	181.68	179.41
유	로	화	(EUR)	1396.31	1407.42	1415.29	1441.99	1412.54
호	주	달	러	(AUD)	832.79	838.01	843.75	862.17
싱	가	폴	달 러	(SGD)	962.11	968.09	973.50	982.43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78.96	279.67	280.95	280.84

판매 장려금 회계처리와 원천징수

Q 회사에서 직원에게 판매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회계처리와 소득구분은 무엇인지?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A 거래처가 아닌 회사 직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하므로, 급여에 합산 반영하시면 됩니다.

간이영수증 처리 관련

Q 접대비가 아닌 일반경비의 경우 간이영수증 3만원 초과시 비용처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수기 소득 관련하여, 동일한 날짜에 정수기 2대에 대하여 각각의 간이영수증을 끊으면 각각 3만원 한도로 적용받을수 있는 것이지요?

합산해서 3만원으로 봐야 하는지요? (세금계산서 발행요청을 해야 하는지..)

A 정수기 소득과 관련하여 각각의 간이영수증을 수취하셔도 되며, 합산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IoT(사물인터넷) 자산성 여부

Q 공장 내 IoT를 설치하였는데 회사 자산성으로 보는게 맞나요?
자산으로 잡아야 하면 소프트웨어쪽으로 잡으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A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려면 식별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 미래경제적 효익의 존재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되는데, 저희가 조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귀사가 미래경제적 효익의 존재 등 해당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특수관계인(법인)에게 차량 매각시 문의 사항

Q 당사의 관계법인에게 차량을 매각하려고 합니다.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 1) 차량을 장부상 잔존가액으로 매각시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신설법인이라 잔존가액이 시가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시가로 매각해야 한다면, 차량의 시가 기준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A 1. 특수관계자에게 법인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잔존가액이 아닌 시가로 계산해야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등 세무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2. 시가는 제3자간에 거래되는 거래가액이므로 중고차시장 등에서 거래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법 및 법인세법상 중소기업 기준 문의

Q 당사는 직전3년간 매출액이 천억이 넘기 때문에 중견회사에 속하였습니다.
22년 예상 매출액을 계산해보니 천억 미만이 될것 같은데
이런 경우, 22년 부터 바로 중소기업으로 적용이 되는것인지? 유예기간이 있는것인지?
적용된다면 중소기업법이랑 법인세법이랑 상충되는 내용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법상의 중소기업의 요건에 해당되면 중소기업의 혜택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유예기간은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까지는 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으로 귀사의 경우와는 다른 경우입니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과 세법상의 중소기업의 요건은 일치하지 않으므로 세법상의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월합계세금계산서는 같은 달 1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의 거래기간 단위로만 발급가능함

상담실 백종훈 차장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재화의 인도시점 또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권리가 사용되는 시점을 거래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거래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정거래처의 경우 거래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번거롭기도 하고,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관리를 위한 시간적·비용적인 낭비가 발생하게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거래가 빈번한 고정거래처일 경우 거래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아닌, 일정기간동안의 거래내역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고 있는데, 바로 '월합계세금계산서'제도가 그것이다.

공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월합계세금계산서는 ① 거래처별로 1역월(달력상의 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발급하거나, ② 거래처별로 1역월(달력상의 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발급할 수 있다. 즉, 1역월간의 거래를 모두 합계하여 매월 말일자로 전체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으며, 거래당사자간에 10일간 또는 15일간의 특정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렇게 일정기간 합계한 세금계산서라도 다음달 10일까지는 거래상대방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서삼 - 953, 2004. 05. 17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에 해당하는 것임.

1역월의 범위

월합계세금계산서는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거나, 1역월 이내에서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발급하는 것인데, 이때의 1역월이란 달력상의 월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1역월의 공급가액의 합계'란 매달 1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1역월 이내에서 임의로 정한 기간'이라 함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사이에서 거래당사자간 임의로 정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임의로 정한 기간이 30일 이내라도 역월을 달리하는 경우는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데, 예를 들어 11월 1일~11월 15일까지의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은 가능하지만 11월 20일~12월 5일까지의 15일간 또는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31일간 등은 역월을 달리하므로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것이다.

♣ 서삼46015 - 11127, 2003. 07. 1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1역월 또는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당해 월의 말일 또는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1역월"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그 달의 말일까지를 말하는 것임.

거래상대방이 고정거래처인 경우만 해당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에 상관없이 무조건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매월 일정량 이상의 거래를 하는 고정거래처의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다.

월합계세금계산서는 빈번한 거래를 하는 고정거래처간의 세금계산서 교부 및 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도입된 특레이므로, 1역월의 기간동안 1건의 거래만 있는 임의의 거래처 등에게까지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을 허용하는 것은 그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거래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어긋나게 된다.

따라서 1역월 또는 1역월내의 임의의 기간중의 거래가 1회에 불과한 경우 등 고정거래처가 아니면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 서삼 - 277, 2004. 02. 18

사업자가 고정거래처에 대하여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는 것이나, 고정거래처와의 거래가 아닌 일반적인 거래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된 공급시기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현행 주식 양도세 대상 대주주 요건

- 보유주식 10억원 이상
- 주식지분율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 보유시

- 양도소득 3억원 이하 땀 세율 20%, 3억원 초과 땀 25% 부과



일시적 1세대 2주택 중복보유허용기간의 개정내용

양도시기	중복보유허용기간
2012. 6. 29. 이후 양도분	• 3년
2018. 10. 23. 이후 양도분	• 조정대상지역 : 2년 • 기타지역 : 3년
2020. 2. 11. 이후 양도분	• 조정대상지역 : 1년(1년 이내 전입) • 기타지역 : 3년
2022. 5. 10. 이후 양도분	• 조정대상지역 : 2년 • 기타지역 : 3년
2023. 1. 12. 이후 양도분	• 지역에 상관없이 3년으로 환원됨



연말정산 때 놓치기 쉬운 공제 제도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 15~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을 90%(한도 200만원)
-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감면을 70%(한도 200만원)

교육비 세액공제

- 학자금대출 상환도 15% 세액공제(교육비) 대상
- 수능응시료 · 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

월세액 세액공제

-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형 오피스텔 포함(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15%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 국민주택규모(도시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 연간 원리금상환액의 40% 소득공제(한도 400만원)



하반기 도입된 전세 피해 방지 제도

내용	시기
전세금 반환 목적 보증금 대출 시 DIT 60% 적용	7월 말부터 연간
전세 사기 피해자 경공매 절차 지원	7월 2일부터
나쁜 임대인 정보 일반에 공개	9월 29일부터
중개보조원 의뢰인 상담 시 자신의 신분 밝혀야	10월 19일부터



자신에 대한 믿음 없이는 시작도 하지 마라

외국 브랜드가 아닌 자신의 브랜드를 걸고 제2인생에 성공한 성신제피자의 창업주 성신제씨. 피자 업계의 신화로 불리는 그의 삶은 성공과 실패, 좌절과 희망이 뒤범벅된 한 편의 드라마다. 1984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미국의 피자헛을 소개한 그는 피자헛을 최고의 외식 브랜드로 만들었다. 그러나 승승장구하던 그의 성공행진은 동업자의 배신과 미국과의 상표권 분쟁에 휘말려 멈추고 만다.

그 후 그는 치킨체인점을 운영하여 3백억원대에 이르는 자산가가 되지만 IMF로 인해 다시 도산하고, 채무자들에게 시달림을 당하다 못해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1997년 재기를 결심한다. 자신의 한계가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스스로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가장 잘 아는 피자사업으로 성공할 자신이 있었고, 한국인들의 입맛에 맞는 피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 끝에 1998년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성신제피자’를 설립하기에 이른다. 이때 그의 나이는 50세였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람마다 생각하는 바가 다르므로 이것에 크게 연연해할 필요는 없다. 정작 문제는 스스로를 형편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데 있다.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해도 스스로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어떤 것에 미쳐도 결실을 맺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최 신 판 례 예 규

납세자가 고의(임의)로 손익귀속시기를 조정하고 이를 과세관청이 경정한 경우 납세자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

기준법무기본-93, 2023.03.07

Ⅰ 질 의

- 손익귀속시기 임의 조정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정 후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한지 여부

Ⅱ 회 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33(2023.03.07)

○ (사실관계) A법인이 회계분식 목적으로 '11~'15사업연도의 유형자산 처분손실을 이연하여 '16~'20사업연도의 손실로 허위계상한 것에 대하여,

- 과세관청이 이를 경정하여 '16~'20사업연도 처분손실을 부인함
- A법인은 상기 과세관청의 경정을 후발적 사유로 하여 이미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11~'15사업연도에 누락한 유형자산 처분손실을 손금산입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함

○ (질의) 납세자가 임의로 손익귀속시기를 조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제4호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제1안)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함

(제2안) 후발적 경정청구 불가함

○ 해당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이하 “개인영농”)을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으로 법인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영농으로서 영농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사전법규재산-922, 2022.12.06

Ⅰ 질 의

- 농업을 경영하던 피상속인이 '22.3월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이 영농상속을 받고 영농에 계속 종사함
- 피상속인은 사망하기 3개월 전에 개인영농을 농업회사법인으로 법인전환함(법인전환 전까지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
* 상속세및증여세법 18②(2) 및 상증령 16에 따른 영농상속의 나머지 요건은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전제함

질의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3개월 전에 개인영농을 농업회사법인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상증령 16②(2)가 목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전환 전 개인영농 영위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Ⅱ 회 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이하 “개인영농”)을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으로 법인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영농으로서 영농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Marketing Tax consulting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복귀하면서 국내 사업장을 신설한 후 해외사업장 축소 완료하거나 기존 국내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도 세액감면 적용됨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복귀하면서 기존의 국내사업장을 폐쇄하고 새로운 국내사업장을 개설한 경우, 신설된 사업장이 증설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설에 따른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이전·복귀하면서 국내사업장을 신설한 후 해외 사업장 축소를 완료한 경우에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정책과-1195, 2023.05.23

질 의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사업장 신설 또는 증설 여부 등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에 따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복귀하면서 기존의 국내사업장을 폐쇄하고 새로운 국내사업장을 개설한 경우, 신설된 사업장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제10항에 따른 증설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설에 따른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이전·복귀하면서 국내사업장을 신설한 후 해외 사업장 축소를 완료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제3항제2호에 따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지급한 코로나19병상 효율화인센티브 지원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규소득-192, 2023.04.10

질 의

- 코로나19 치료병상 운영 의료기관 및 의료기관으로 부터 코로나19환자를 수용한 일반 의료기관이 부족한 병상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회복기 환자를 전원 전실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여(이하 "쟁점보상금") 병상 회전율을 제고하는 경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근거하여 지급받는 쟁점보상금이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지급한 코로나19병상 효율화인센티브 지원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K-칩스법' 중소기업보다 저세율... 감면액도 연간 3조원 넘어

정부 주도로 통과한 반도체 세액공제, 통칭 'K-칩스법'으로 인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간 세금감면액도 정부가 주장한 25조원에서 3조원을 뛰어넘는다는 관측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자체 분석한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투자분에 대한 세금감면액이 3조5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2023년 심의한 'K-칩스법' 감면 추정액 19조6859억원에 감면세율을 적용한 결과다.

2022년의 경우 11조원 신청, 감면액은 7200억원 수준이었다.

장 의원은 이러한 세금감면은 삼성과 SK하이닉스에 적용되는데 항상 최저한세 수준(17%)의 세율에 머물러 있는 두 기업이 'K-칩스법' 감면을 받으면 세법상 최대치의 감면을 받게 되고, 최저한세를 적용받는 중소기업들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반도체가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현금이 많은 특정 기업에게 이렇게 과도한 감면을 적용하는 게 온당하지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라며 "이러한 지나친 세액공제는 재계의 최저한세 폐지 요구를 촉발해 더 큰 감세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했다.

국세청, 불법사채업자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해 "탈탈 털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민생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 세무조사 뿐만 아니라 범죄수익 환수, 사채업자에 제공된 자산의 국고 귀속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특히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검찰과 경찰 등 유관기관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은 단속을 하면 없어지다가 조금 취약해지면 독버섯처럼 나온다"며 "국세청,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이 이렇게 여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감독원과 국세청, 검·경의 팀워크가

중요하다"며 "국세청에서 장부를 들여다 보더라도 당장 칼을 들이대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치안기관에서 세무조사를 협조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창기 국세청장은 대통령의 이러한 특별 지시에 "불법 사금융이 이자를 받을 때 사채업자 본인이 아니라 가족 등의 명의를 이용하는 등 차명계좌를 활용하는데 광범위하게 조사를 해 불법 수익을 추적하겠다"며 "현금을 받는 경우에도 현금을 가지고 다른 자산을 취득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감시해 철저하게 과세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세액공제 직접환급제 도입으로 이차전자 투자 활성화해야

기획재정부 소속 김상훈 의원(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개최한 '국가전략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직접환급제 도입 방안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차전자 투자 확대를 위해 세액공제 직접환급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이차전지 분야 투자 최대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25%, 중소기업 35%이다. 정부가 지난 4월 세제지원 개편을 시행하면서 종전보다 세액공제율이 상향됐지만, 세액공제 방식이 법인세 공제 한 가지라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국내 배터리 3사에 전해액을 공급하는 오정강 엔켐 대표는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글로벌 배터리 산업은 전시(戰時) 상황"이라며 "산업 간 형평성도 고려돼야 하겠지만, 이차전지 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정책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황성필 국회 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조사관은 "현행 제도는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 산업 지원에 한계가 있다"면서도 "개정안을 도입하면 사실상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했다.

또 박금철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도 "저소득층을 위해 만들어진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를 과연 배터리 산업에 도입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면서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 2023. 11

2024년 1월 1일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기획재정부는 관련 법률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1월 9일(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합니다.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는 국가 간 조세 경쟁을 방지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 합의된 것으로서 각국은 관련 규정의 입법을 통해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를 이행하며, 우리는 이를 위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2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 포괄적 이행체계 (Inclusive Framework): 다국적 기업의 세원 잠식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 이행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체(현재 143개국 참여)로서 필라1·2 논의

이번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기업들은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적용 여부, 추가적인 세부담의 계산 등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영향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11.9.~12.7.),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3년 12월 중 공포될 예정이며,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글로벌최저한세 도입

- ◇ 금번 시행령개정은 '24.1.1. 글로벌최저한세 시행을 앞두고 법률('22.12월 국회통과) 위임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
 - '23.2월·'23.7월 OECD가 발표한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반영
 - 시행일은 '24.1.1.

(1) 통칙

① 글로벌 최저한세 주요 용어 구체화(국조령 §100 신설)

< 법 개정내용(§61) >

- ☐ 글로벌최저한세 주요 용어 정의
- 그룹, 지배지분, 연결재무제표 요건 등은 대통령령에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그룹, 지배지분, 연결재무제표 요건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룹)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자산·부채·수익·비용 등이 항목별로 포함*된 기업의 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모 또는 중요성 기준의 미충족, 매각 목적의 보유 등의 사유로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된 기업도 포함 ○ (지배지분) 자산·부채·수익·비용 등이 회계기준에 따라 항목별 연결대상인 기업 등에 대한 해당 소유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부편의 소유지분은 지배지분에서 제외 ○ (연결재무제표)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표시된 재무제표로서 인정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되거나, 필요한 조정을 거친 재무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회계기준의 원칙과 절차가 적용되어 계산한 금액과 비교하였을 때 한 사업 연도에 7천 5백만 유로를 초과하는 합계 편차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② 합병·분할 시 연결매출액 기준 산정(국조령 § 101, § 102 신설)

< 법 개정내용(§62②) >

- ☐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
- 적용대상 그룹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 ① 별도의 연결 매출액 적용대상(합병·분할 구체적 내용 등)
 - ② 연결매출액 기준 산정방법
 - ③ 기준금액(7.5억유로) 원화 환산 시 적용환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합병·분할·신설에 해당하는 구체적 내용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병) ① 두 개 이상 별도의 그룹(기업)이 같은 지배를 받아 하나의 그룹을 구성하는 경우 ② 기업이 다른 그룹(기업)의 지배를 받아 그 그룹 기업이 되는 경우 ○ (분할) 그룹기업들이 더 이상 동일한 최종모기업에 의해 연결되지 않도록 되는 경우 ○ (신설) 합병·분할을 제외한 그룹이 설립되는 경우 ② 그룹(또는 기업) 합병·분할 후 연결매출액 기준 (7.5억유로) 충족여부 판단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병) 합병 전 각 사업연도의 각 그룹(기업)의 연결매출액 또는 매출액의 합계로 판단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할) ❶ 분할 후 1번째 사업연도: 분할그룹의 해당 회계연도 연결매출액으로 판단 * ❷ 2~4번째 사업연도: 분할 후 각 사업연도의 분할 그룹의 연결매출액으로 판단 * 분할이전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중인 기업이 분할 후 첫 사업 연도 매출이 7.5억 유로 이상인 경우 글로벌최저한세 계속적용 ❸ 유로화 기준금액의 환산 시 사용 환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연도 12월 평균 환율* 사용 * 유럽중앙은행(ECB)의 고시환율
-------	---

③ 제외기업 요건 구체화(국조령 §103 신설)

< 법 개정내용(§62③⑤) >

- ☐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최종모기업인 투자펀드 및 부동산 투자기구 등은 글로벌최저한세 적용제외
 - 적용제외 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 ☐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제외기업을 구성기업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제외기업에 대한 구체적 요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❶ (정부기관) 정부의 일부이거나 정부가 전부 소유, 비영리 활동, 경영의 이익 등이 모두 정부에 귀속 ❷ (국제기구) 주로 다수의 정부로 구성, 설립국과의 협정 존재, 이익의 사인 배분 금지 ❸ (비영리기구) 종교·과학·예술·교육 등 목적으로 설립·운영, 설립지 관할국에서 과세되지 않음 ❹ (연금펀드) 개인에 연금수당·급부 제공을 위해 설립·운영되는 기업(정부에 의해 규제, 급부제공 이행 담보) * 연금펀드의 편익을 위해 자금을 투자하는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연금서비스기업 포함 ❺ (투자펀드) 다수 투자자들의 자산을 모아 비용절감, 수익창출 목적 등을 위해 설계되는 등 해당국의 국내법* 규제 대상 등 * 자본시장법 §9⑩의 집합투자기구 및 그와 유사한 것 ❻ (부동산투자기구) 소유가 분산, 주로 부동산투자, 투자기구 또는 소유자 중 하나만 과세 ❼ 제외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기업 * 연금서비스기업 제외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외기업이 95% 이상 소유한 기업으로 제외기업을 위한 자산보유·투자 목적으로만 운영하는 경우 등 - 제외기업이 85% 이상 소유한 기업으로 모든 이익이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계산시 제외되는 배당 또는 지분손익인 경우 <p>□ 제외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기업*은 신고 구성기업의 선택으로 구성기업으로 적용 가능</p> <p>* 제외기업의 유형 중 ⑦에 해당하는 제외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구성기업이 선택·적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 연도와 이후 4개 사업연도에 적용(5년선택) - 해당 적용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사업연도와 이후 4개 사업연도에는 동일한 5년선택 적용 불가
-------	--

④ 구성기업의 소재지 분류요건 구체화(국조령 §104 신설)

< 법 개정내용(§64) >

<p>□ 글로벌최저한세의 소재지 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세법상 거주자인 국가.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과기업은 무국적 또는 설립지국에 소재 ○ (고정사업장 및 이중소재기업) 조세조약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 투과기업의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지 국가에서 손익에 대해 기업이 아닌 지분을 보유하는 자(주주)에게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설립지외의 국가에서 세법상 거주자로서 대상조세 또는 적격소재국추가세 과세대상은 제외 <p>□ 고정사업장 및 이중소재기업의 소재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정사업장) 고정사업장의 각 분류에 따라 과세 하거나, 과세권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는 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하지 않는 경우 무국적 간주 ○ (이중소재기업) ①조세조약에 따른 거주지국가, ②대상조세액 더 큰 국가, ③실질 기반제외소득액 더 큰 국가 순으로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기반제외소득이 같거나 없는 경우 무국적간주

(2) 추가세액의 계산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의 계산>

① 회계상 순손익 조정사항(국조령 §105~§124 신설)



< 법 개정내용(§66①) >

- ☐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방법 규정
- * 최저한세율 15%와 비교하기 위한 실효세율을 계산하기 위한 소득·결손
- ☐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 반영하여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

가. 필수조정사항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input type="checkbox"/>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을 위해 회계상 순손익에 아래의 금액을 필수적으로 조정</p> <p>① 대상조세·글로벌최저한세 추가세액 등(순조세비용) 가산</p> <p>② 배당수익* 차감</p> <p style="padding-left: 20px;">* 단기분산투자지분(지분율 10% 미만, 1년 미만 보유지분)에서 발생한 배당수익 제외(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 포함)</p> <p>③ 각종 자산의 평가 또는 처분 손익 등 조정</p> <p style="padding-left: 20px;">- 소유지분에 대한 공정가치*·지분법 평가 및 처분 손익*과 유형자산의 재평가손익 조정</p> <p style="padding-left: 20px;">* 분산투자지분(지분율 10% 미만)에서 발생한 손익 제외(글로벌 최저한세소득에 포함)</p> <p>④ 회계상 통화와 세무상 통화 차이에 따른 외환 손익 조정</p> <p>⑤ 불법적인 지출(회계상 비용으로 계상된 뇌물 등) 가산</p> <p>⑥ 전기오류수정·회계정책 변경은 당기에 차감·가산</p> <p>⑦ 연금비용은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하여 실제 납입 금액(사외적립자산기여금 등)으로 조정</p> <p>⑧ 구성기업간 거래에서 적용한 금액은 정상가격 원칙*에 따른 금액으로 조정</p> <p style="padding-left: 20px;">* 비교가능한 제3자간 거래에서 설정되었을 조건을 적용</p> <p>⑨ 요건을 만족하는 세액공제* 가산</p> <p style="padding-left: 20px;">* ❶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구성기업 소재지국의 법률에 따라 4년 이내에 현금 또는 현금등가물로 지급되는 세액공제 ❷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대상조세를 납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기준금액 이상으로 양도 가능한 세액공제</p> <p>⑩ 그룹내 내부금융약정 거래*를 하는 경우 해당 거래에 따른 저율과세기업의 비용 증가분 가산</p> <p style="padding-left: 20px;">* 저율과세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키면서, 거래상대방의 세무상 익금을 비용 증가분만큼 증가시키지 않는 경우 등</p> <p>⑪ 보험계약자의 수익에 대한 보험구성기업의 납부 세금이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으면 해당 세금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청구한 금액은 차감</p> <p>⑫ 은행업 및 보험업을 하는 구성기업이 건전성 규제 등에 따라 발행하는 금융상품으로부터의 배당은 지급시 비용(차감), 수취시 수익(가산)</p> <p>⑬ 법에서 정한 특례(조직재편, 공동기업, 적격분배 등) 규정에 따른 조정</p>

나. 선택조정사항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을 위해 회계상 순손익에 아래의 방법은 선택적용 가능 ① 주식기준보상거래 시 회계상 인식한 비용 대신 세무상 손금으로 조정 가능(5년선택 조건) ② 자산·부채의 평가·손상관련 손익은 제외하고, 처분시점에 일괄 반영 가능(5년선택 조건) ③ 부동산 처분이익은 회계상 순손익에서 제외하고, 선택사업연도 및 이전 4개 사업연도에 배분 가능 ④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은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 계산시 연결회계조정 반영 가능(5년선택 조건) ⑤ 법원의 결정 등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은 제외 ⑥ 별도 회계상 계상되지 않는 연결조정 사항 중 내부거래의 제거 외의 사항에 대한 연결회계조정 반영 가능

② 구성기업 회계기준이 최종모기업과 상이한 경우 적용 가능한 회계기준(국조령 §125 신설)

< 법 개정내용(§66②) >

- ☐ 구성기업이 최종모기업의 회계기준 적용이 곤란한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회계상 순손익 산정 가능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최종모기업의 회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회계기준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과 사용 가능한 회계기준 ① 회계기준 사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장부가 ②의 회계기준에 따라 기록·관리 - 회계장부 정보를 신뢰 가능(회계감사 받을 것) - ②의 회계기준 사용하는 경우, 최종모기업의 회계기준과 1백만유로 미만의 영구적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구적차이가 1백만유로 이상 발생시 최종모기업 회계기준 사용 ② 사용가능한 회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회계기준 및 우리나라, 미국, 유럽연합, 영국, 중국, 일본 등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 각 국가의 공인회계기구에서 승인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③ 국제해운소득의 제외 및 계산

가.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에서 제외되는 국제해운소득·결손 등의 범위(국조령 §126

①,② 신설)

< 법 개정내용(§66③) >

- ☐ 국제해운소득이 있는 구성기업은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해운소득·결손 및 적격 부수소득·결손 제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에서 제외되는 국제해운 소득·결손 및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결손 ① 국제해운소득·결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항행 선박을 통한 여객·화물의 운송 - 일부용선계약에 따라 운항하는 국제항행 선박을 통한 여객·화물의 운송 - 여객·화물용 선박*의 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장비, 선원 및 선용품이 포함된 선박 - 다른 구성기업에 선박만 임대 - 공동운항, 공동사업 또는 국제해운기구 참여 - 국제항행 운송에 사용된 1년 이상 보유한 선박의 매각 ② 부수적인 국제해운소득·결손* 중 일부(적격국제해운 부수소득·결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국제해운소득의 50% 범위내에서만 인정 - 그룹 구성기업 아닌 해운기업에 선박만 임대 (임대기간 3년 이하) - 국제항행의 국내구간 항행을 위해 다른 해운 기업이 발권하는 표의 판매 - 컨테이너의 임대 및 단기보관, 반납지연 지체료 - 다른 해운기업에 제공하는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기업의 엔지니어, 유지보수·화물처리·급식서비스·고객서비스 인력에 의해 제공 - 국제해운사업의 영위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

나. 국제해운소득·결손 등의 계산방법(국조령 §126③,④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국제해운소득·결손,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결손 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해운소득 등에서 발생한 매출액(수입금액)에서 관련 직·간접비용을 차감하여 산출 ○ 국제해운소득 등의 직·간접비용으로 처리된 금액은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에서 제외

다. 국제해운사업의 실질적 수행에 대한 입증(국조령 §126⑤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국제해운사업의 실질적 수행을 입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기업은 국제해운사업의 전략적·운영상 관리가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 내에서 수행되고 있음을 입증

④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 계산(국조령 §127 신설)

< 법 개정내용(§66④) >

- ☐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회계상 순손익은 고정사업장의 별도재무제표 작성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회계상 순손익 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약 등*에 따른 고정사업장) 조세조약 또는 소재지국의 법률 등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귀속 되는 수익·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중인 조세조약, 국내법, OECD 모델조약 ○ (상기 외 고정사업장) 본점 소재지국에서 과세 되지 않고, 소재지국 밖에서 수행 되는 사업에 귀속 되는 수익·비용

⑤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 배분(국조령 §128 신설)

< 법 개정내용(§66⑥) >

- ☐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은 사업을 수행하는 고정사업장 등 다른 구성기업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분
- * 배분된 금액은 해당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에서 차감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구성기업인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이익 배분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과기업 = 투시과세기업 + 역혼성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시과세기업: 투과기업으로서 그 소유자의 소재지국에서 과세상 투시되는 것 - 역혼성기업: 투과기업으로서 그 소유자의 소재지국에서 과세상 투시되지 않는 것 ① 고정사업장을 통해 사업이 수행되는 경우 해당 회계상 순손익은 고정사업장에 배분 ②-1 최종모기업이 아닌 투시과세기업은 ①에 따라 배분 후 잔여 순손익을 주주구성기업에게 배분 ②-2 최종모기업인 투시과세기업, 역혼성기업은 ①에 따라 배분 후 잔여 순손익을 그 자신에게 배분

**<조정대상조세의 계산>****① 대상조세의 정의 및 제외 항목(국조령 §129 신설)****< 법 개정내용(§67①) >**

☐ 대상조세는 구성기업의 소득 또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 등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구성기업 대상조세의 정의 및 제외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조세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기업의 소득이나 이익에 대한 세금 - 적격분배과세제도*하에서 배당 등에 부과되는 세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발생시점이 아닌 배당지급시점에 과세되는 제도 -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인세 대신 부과되는 세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자, 임차료, 사용료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등 - 소득·자본에 기초한 복수의 구성요소에 대한 세금 ○ 대상조세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추가세액(적격소득산입규칙·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 및 적격소재국추가세액) - 비적격 환급가능 귀속세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기업에 부과한 세액으로서 배당 시에 해당 구성기업 또는 배당수익자에게 환급되는 세액 - 보험계약자에 귀속되는 수익에 대해 보험회사가 납부하는 세금

② 대상조세 조정사항(국조령 §131 · §132 신설)**< 법 개정내용(§67①) >**

☐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는 당기법인세비용으로 계상된 대상조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조정대상조세는 당기법인세비용에 ①가산액, ②차감액, ③자본·기타포괄이익에 계상되는 대상조세*, ④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반영하여 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에 포함되는 항목에 대한 것에 한함 <p><가산액></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세전이익을 계산할 때 비용으로 계상한 대상조세 ② 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발생시 인식한 글로벌 최저한세결손이연법인세자산 금액의 사용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반영하는 대신,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한 이연법인세자산을 반영

<신 설>	<p>③ 이전 사업연도에 대상조세에서 차감처리된 과세 항목*의 당기 납부액 * 불확실한 세무처리와 관련한 당기법인세비용</p> <p>④ 당기법인세비용의 차감으로 처리된 적격환급가능 세액공제 또는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p> <p><차감액></p> <p>①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대한 당기법인세비용</p> <p>② 당기법인세비용의 차감으로 처리되지 않은 비적격 환급가능세액공제·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기타 세액공제</p> <p>③ 불확실한 세무처리와 관련한 당기법인세비용</p> <p>④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 납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당기법인세비용</p>
-------	--

③ 구성기업 간 대상조세의 배분(국조령 §130 신설)

< 법 개정내용(§67①) >

- ☐ 고정사업장 소득, 다른 구성기업으로부터 수취한 배당 등과 관련된 대상조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input type="checkbox"/> 구성기업 간 대상조세의 배분방식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점의 회계상 계상된 대상조세 중 고정사업장 귀속분: 고정사업장에 배분 ○ 투시과세기업의 회계상 계상된 대상조세 중 주주구성기업 귀속분: 주주구성기업에 배분 ○ 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에 따라 주주구성기업이 납부하는 대상조세: 피지배외국법인에 배분 <p>* Controlled Foreign Company Tax Regim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성기업의 소득에 대한 대상조세로 주주구성기업의 회계상 계상분: 해당 혼성기업에게 배분 ○ 구성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한 대상조세 중 주주구성기업(직접주주)의 회계상 계상분: 배당을 지급하는 구성기업에 배분 <p>※ 피지배외국법인과 혼성기업에 배분되는 대상조세 중 수동소득*에 대한 대상조세는 배분한도** 적용</p> <p>* 이자, 배당, 임대료, 사용료, 연금소득 등</p> <p>** 수동소득에 대해 주주구성기업이 납부하는 대상조세를 고려하지 않고 산출된 구성기업 소재지국 추가세액비율(최저한세율(15%) - 실효세율)에 수동소득을 곱한 금액</p>



④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국조령 §133①·② 신설)

< 법 개정내용(§67②) >

-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은 회계상 이연법인세비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출
 *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계산시 사용, 당기법인세비용으로 계상된 대상조세에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등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를 계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계산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은 회계상 인식한 이연 법인세비용*에 아래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한세율을 초과하는 세율로 계산되었다면, 최저한세율로 재계산한 값 ① (제외) ①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산정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비용, ②산입불가 사항* 및 이연법인세 미반영사항**, ③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한 평가조정, ④국내 적용세율의 변동에 따른 재계산, ⑤이월세액공제 발생·사용에 관한 이연법인세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불확실한 과세항목과 관련된 이연법인세 비용의 변동, ②구성기업이 다른 구성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과 관련하여 인식하는 이연법인세비용의 변동 ** 당기 재무제표에 인식하였으나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납부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이연법인세부채로,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선택한 금액 ② (가산) ①산입불가사항 및 이연법인세 미반영사항에 대한 당기납부액, ②당기에 납부된 이연법인세부채 환입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 포함된 이연법인세부채 증가액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소멸되지 않아 환입된 금액 ③ (차감) 세무상 결손금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이 인식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하였다면 감소되었을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과세소득 창출이 불확실하여 회계상 계상하지 못한 경우

⑤ 글로벌최저한세율(15%) 미만의 세율로 인식된 이연법인세자산의 조정(국조령 §133③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 해당 이연법인세자산이 인식된 사업연도로 소급 하여 최저한세율로 이연법인세자산 재계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계산으로 인해 증가되는 이연법인세자산 금액 만큼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서 차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한세율 미만의 세율로 인식된 이연법인세자산이 글로벌 최저한세결손에 기인한 경우에 한정

⑥ 환입제외항목인 이연법인세부채의 범위(국조령 §134 신설)

< 법 개정내용(§67③) >

- ☐ 이연법인세부채 계상후 5년 이내에 관련 법인세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 이를 환입하여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 재계산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환입에서 제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환입제외항목인 이연법인세부채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항목과 관련한 이연법인세부채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법인세 비용 ○ ①유형자산의 가속감가상각 등에 따른 상각누계액, ②유형자산에 대한 상당한 투자가 수반되는 천연자원 개발에 필요한 부동산의 사용권에 소요된 비용 등, ③연구개발비, ④사후해체 및 복구비용, ⑤공정가치 회계처리로 발생하는 미실현순이익, ⑥손익환차익, ⑦보험책임준비금 등, ⑧유형자산의 매각차익이 동일 국가의 유형자산에 재투자된 경우, ⑨위 ①~⑧과 관련된 회계기준의 변경에 따라 증가하는 금액

⑦ 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 특례(국조령 §135 신설)

< 법 개정내용(§67④) >

- ☐ 조정대상조세 및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신고구성기업은 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를 최초적용연도에 한하여 선택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대상조세 계산 시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계산 대신 소재지 국별로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한 금액을 글로벌최저한세결손이연법인세자산으로 설정가능 ○ (선택요건) 해당 국가에서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기업들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이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 ○ (처리방법) 해당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한 금액을 글로벌최저한세결손이연법인세자산으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최저한세결손이연법인세자산은 순글로벌 최저한세소득이 발생하는 후속 사업연도에 사용 되며, 미사용 잔액은 이월 - 특례 적용을 취소 시, 해당 사업연도의 글로벌 최저한세결손이연법인세자산은 영(零)으로 감액



⑧ 신고 후 대상조세 및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조정 (국조령 §136, §137 신설)

< 법 개정내용(§68①②) >

- ☐ 이전사업연도의 대상조세의 금액이 신고 이후 변경되는 경우
- (대상조세 증가) 경정사업연도*의 대상조세에 가산
 - * 결정이나 경정이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대상조세 감소) 경정대상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서 차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 재계산
 - * 결정·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조세의 경미한 감소는 해당 신고 구성기업의 선택으로 경정사업연도 대상조세에서 차감 가능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소득조정) 대상조세의 감소로 인해 경정대상사업 연도 및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기간 동안 대상조세 감소에 상응하는 글로벌 최저한세소득·결손을 조정하여 실효세율·추가세액 재계산 <input type="checkbox"/> (경미한 감액 판단기준 금액) 1백만유로 미만 감액

⑨ 적용세율 변동으로 인한 대상조세의 조정(국조령 §138 신설)

< 법 개정내용(§68③) >

- ☐ 이연법인세비용 산정에 적용되는 세율 변경 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조세 조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적용세율 변동으로 인한 대상조세의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세율이 최저한세율보다 낮게 인하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연법인세비용은 그 이연법인세비용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대상조세에서 차감 ○ 국내세율이 최저한세율보다 높게 인상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이연법인세비용이 최저한세율 미만의 세율인 경우에 한함 - 최저한세율로 재계산한 부분에 해당하는 이연 법인세비용은 당기 사업연도의 대상조세에 가산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 계산>

① 별도로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무국적 구성기업의 범위 (국조령 §139 신설)

< 법 개정내용(§69④) >

- 투과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국적구성기업은 별도의 국가를 가정하여 그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 기업으로 간주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무국적 구성기업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과기업으로서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아니거나, 소득산입규칙 적용이 요구되지 않는 기업 ○ 소재지국밖에서 사업을 하고,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해당 소재지국에서 과세하지 않는 고정사업장

②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의 계산(국조령 § 140①~⑦, ⑪ 신설)

< 법 개정내용(§70③) >

-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초과이익은 순글로벌최저한세 소득금액에서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을 차감하여 계산
- 실질기반제외소득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초과이익 산출시 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의 계산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내 각 구성기업의 ①인건비 및 ②유형자산 장부가액의 합계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의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아래 유형자산에 자본화된 인건비 및 국제 해운소득·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으로서 글로벌 최저한세소득·결손 제외되는 인건비는 제외 ② 연결재무제표 작성 목적에 따라 기록된 유형자산 장부가액*의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용리스는 원칙적으로 이용자가 사용권 계상시 해당 장부가액 으로 하며, 미계상시 제공자의 유형자산 장부가액으로 간주 - 다만, 매각·임대·투자 목적의 유형자산 및 국제 해운소득·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의 창출을 위해 사용되는 유형자산 장부가액은 제외 ※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외에서 근로제공 또는 유형 자산 소재 시 → 국내 귀속비율*로 제외금액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귀속비율이 50% 초과시에는 100%로 간주 ※ '24~'32년까지는 인건비·유형자산 장부가액에 5% 제외비율 대신 연도별 차등 제외비율*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9.8~5.8% / (유형자산) 7.8~5.4% ○ 투자구성기업의 인건비 및 유형자산 장부가액은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 <input type="checkbox"/> 신고구성기업은 선택에 따라 추가세액 계산 시 실질기반제외소득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감하지 않을 수 있음



③ 고정사업장 및 투과기업의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 계산 (국조령 § 140⑧~⑩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고정사업장·투과기업의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 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정사업장의 재무제표에 계상되고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에 위치한 적격인건비·적격유형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점의 적격인건비·적격유형자산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한정 고정사업장 소득의 전부·일부가 글로벌최저한세 소득에서 제외 시, 적격인건비·적격유형자산도 제외소득 비율로 다국적기업그룹의 실질기반 제외소득 금액의 산정에서 제외 고정사업장에 배분되지 않는 투과기업의 적격 인건비·적격유형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이 주주구성기업에게 배분되는 경우로서, 적격근로자·적격유형자산이 주주구성기업과 같은 국가에 있을 때, 동일한 비율로 주주구성기업에 배분 ② 투과기업이 최종모기업인 경우, 같은 국가에 위치한 적격인건비·적격유형자산은 그 자신에게 배분 ③ 투과기업의 ①·②의 적격인건비·적격유형자산은 투과기업이 속한 다국적기업그룹의 실질기반제외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

④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의 계산(국조령 § 141 신설)

< 법 개정내용(§70④) >

☐ 이전사업연도의 실효세율 재계산으로 발생하는 당기추가세액 가산액의 계산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당기추가세액가산액 계산 방법 및 배분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전사업연도의 실효세율·추가세액을 재계산*한 결과 증가하는 추가세액 → 당해 사업연도의 당기 추가세액가산액으로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율변동, 5년간 납부되지 않은 이연법인세 부채, 이전사업연도 납세의무 감소 등의 경우에 허용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이 없는 국가*에서 해당 국가의 조정대상조세가 음수로 조정대상조세 예상액** 보다 작을 경우 당기추가세액 계산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내 구성기업들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의 합계에서 글로벌 최저한세결손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이 영 또는 음수인 경우 ** 해당국가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금액에 최저한세율(15%)를 곱한 금액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text-align: center;"> 조정대상조세 예상액 - 조정대상조세액 </div>

⑤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의 요건(국조령 § 142 신설)

< 법 개정내용(§70⑤) >

- ☐ 추가세액을 영(零)으로 만들기 위해 구성기업 소재지국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의 요건 ①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에 따라 국가별 초과이익 산정 ② ①의 초과이익에 대한 세부담이 최저한세율(15%) 적용 수준으로 증가 ③ 추가세액 부담기업에 어떠한 편익도 제공하지 않음

⑥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의 예외(국조령 § 143 신설)

< 법 개정내용(§71) >

- ☐ 구성기업 추가세액은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며, 계산식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text{구성기업 추가세액} = A \times \frac{B}{C}$$

A: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

B: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C: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의 합계
(글로벌최저한세결손은 포함하지 않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이전사업연도에 대한 실효세율의 재계산으로 발생한 당기추가세액가산액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에 해당 국가의 순글로벌최저한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이 발생한 이전 사업연도의 각 구성기업 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에 대한 글로벌 최저한세소득을 기준으로 각 구성 기업에 배분 <input type="checkbox"/>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이 없는 국가에서 조정대상 조세가 음수로 조정대상조세 예상액*보다 작아서 차액을 당기추가세액가산액으로 처리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국가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금액에 최저한세율(15%)를 곱한 금액 ○ 해당 당기추가세액가산액에 비례하여 각 구성 기업에 배분 ※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이 배분되는 구성기업은 저율과세구성기업으로 간주

(3) 추가세액의 과세

①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한 모기업의 소득납입비율 계산 (국조령 § 144 신설)



< 법 개정내용(§72②) >

- ☐ 저울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 중 모기업이 부담하는 추가세액 배분액 계산식*에서 ‘모기업의 소득산입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세액배분액 = 저울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 × 모기업의 소득산입비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input type="checkbox"/> (모기업의 소득산입비율) 저울과세구성기업의 추가 세액 중 모기업이 부담하는 추가세액배분액 비율</p> $\text{소득산입비율} = 1 - \frac{(A) \text{저울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중 모기업 외의 다른 소유자 귀속분}}{(B) \text{저울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최종모기업이 적용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다른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금액 ○ (B) 당기추가세액가산액 발생 시, 당기추가세액 가산액을 최저한세율로 나눈 금액을 (B)로 간주* <p>* 해당 국가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p>

② 적격소득산입규칙의 요건(국조령 § 145 신설)

< 법 개정내용(§72④1) >

- ☐ 적격소득산입규칙의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input type="checkbox"/> 적격소득산입규칙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득산입규칙 및 이에 상응하는 다른 국가의 규정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소득산입규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 ❶글로벌최저한세 규칙(OECD합의)에 따른 결과와 부합하도록 시행, ❷해당 국가가 글로벌 최저한세의 도입·시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편익도 제공하지 않을 것

③ 소득산입규칙 중복적용 방지를 위한 추가세액배분액의 차감액 계산(국조령 § 146 신설)

< 법 개정내용(§72⑥) >

- ☐ 소득산입규칙 중복 적용으로 인한 이중과세 방지 규정
- 국내소재 하위 모기업이 소득산입규칙에 따라 추가세액 배분액을 부담한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모기업의 추가세액배분액에서 차감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모기업의 추가세액 배분액에서 차감하는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소재 중간모기업 또는 부분소유중간모기업 추가세액 × 상위 모기업의 소득산입비율(영 §144)

④ 소득산업보완규칙의 국가별 배분비율 계산관련 세부사항 (국조령 §147 신설)

< 법 개정내용(§73④) >

- ☐ 소득산업보완규칙 추가세액의 국가별 배분액 계산
-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산업보완규칙 추가세액은 종업원 수·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을 고려한 배분비율에 따라 각 국에 배분
 - 종업원수·유형자산 순장부가액 정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소득산업보완규칙의 국가별 배분비율 계산식 관련 세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구성기업은 배분대상에서 제외 ○ (종업원 수)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시간 기준 으로 환산한 종업원 수 ○ (유형자산 순장부가액) 연결재무제표에 계상된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으로 기초·기말의 평균금액 ○ 종업원 수 및 유형자산 순장부가액 계산 시, 구성기업별 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❶ 종업원수·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이 고정사업장의 별도회계에 포함되면, 고정사업장의 소재지국에 배분* * 본점의 종업원수·유형자산 순장부가액에서는 제외 ❷ 고정사업장에 배분되지 않은 투과기업의 종업원수·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은 투과기업의 설립국에 다른 구성기업이 있는 경우 해당국에 배분 ❸ 투과기업의 ❶·❷외 종업원수·유형자산 순장부 가액은 배분비율 계산에서 제외

(4) 특례

① 최소적용제외 특례 세부사항(국조령 §148 신설)

< 법 개정내용(§74①) >

- ☐ 당해 사업연도와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에 대해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 세액이 없는 것으로 간주
- 매출액 평균이 1천만유로 미만
 -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금액 평균이 1백만유로 미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최소적용제의 특례* 관련 세부사항 * 적용여부는 매년 선택가능하나, 신고서 제출 이후 경정 또는 총자산처분이익 조정(영 §118)이 있는 경우 적용제외 ○ (매출액 평균) 해당 국가 모든 구성기업들의 당해 사업연도 및 직전 2개연도 매출액* 합계의 평균 *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의 계산을 위한 조정사항을 반영한 매출액 ○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금액 평균) 해당 국가의 당해 사업연도 및 직전 2개연도 순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 합계의 평균 ※ 과거사업연도에 매출액 또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이 있는 구성기업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 연도는 평균금액 계산에서 제외

② 소수지분하위그룹의 정의(국조령 § 149 신설)

< 법 개정내용(§75①) >

- ☐ (소수지분구성기업 특례) 소수지분구성기업*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그룹(소수지분 하위그룹)은 별도의 다국적기업그룹 으로 보아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을 계산
- * 최종모기업의 소유지분비율이 30% 이하인 구성기업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소수지분하위그룹의 정의 ○ (소수지분하위그룹) 소수지분모기업과 그 소수 지분자회사로 구성되는 그룹 - (소수지분모기업) 다른 소수지분구성기업의 지배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는 소수지분구성기업* * 다만, 해당 소수지분모기업의 지배지분을 다른 소수지분구성 기업이 보유하는 경우는 제외 - (소수지분자회사) 소수지분모기업이 지배지분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는 소수지분구성기업

③ 합류 또는 이탈 구성기업의 취급(국조령 § 150①~⑦ 신설)

< 법 개정내용(§76①본문) >

- ☐ 소유지분이전으로 구성기업이 다국적기업그룹에 합류·이탈 하는 등의 경우 최종모기업 연결재무제표 포함여부 등을 고려하여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적용
-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 소유지분이전으로 다국적기업그룹에 합류, 이탈 하거나 새로운 그룹의 최종모기업이 되는 경우의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적용 관련 세부사항 규정</p> <p><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및 조정대상조세 계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지분이전으로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그 기업을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으로 취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및 조정 대상조세 계산시 이전기업의 순손익과 조세* 중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금액만 고려 * 장부가액을 사용하되, 지분이전이 '21.11.30.이전으로, 기존 장부가액으로 회계상 순손익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 <p><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 계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된 금액 ○ (유형자산 장부가액)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기간에 비례하여 조정한 금액* * 취득에 따른 매수법회계 연결조정금액을 반영한 금액 <p><이전되는 구성기업의 이연법인세 자산·부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연법인세자산·부채 발생 당시에 인수한 기업 그룹이 그 구성기업을 지배한 것으로 보아 처리 ○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수일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 5년내 미납시 환입* * 환입이 발생하는 경우, 법 §67③에도 불구하고 환입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대상 조세에서 차감 <p><소득산입규칙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연도 중 합류·이탈로 소속 다국적기업그룹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룹별(처분·취득그룹) 적용

- ④ 소유지분의 이전을 자산·부채의 이전과 유사한 방법으로 과세하는 경우의 규정(국조령 §150⑧ 신설)

< 법 개정내용(§76①단서) >

- 소재지국에서 이전대상기업의 지분이전을 자산·부채의 이전과 같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과세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처분손익 과세이연 가능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 소유지분의 이전을 자산·부채의 이전과 유사한 방법으로 과세하는 경우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분과 자산·부채의 세무상 가액이 유사한 것으로 보아 해당 지분의 이전대가와의 차액을 과세하거나 ○ 자산·부채의 세무상 가액과 공정가액 간의 차액을 과세하는 경우



⑤ 글로벌최저한세에 따른 조직재편의 요건(국조령 § 151 신설)

< 법 개정내용(§76②·③) >

- ☐ 조직재편이 자산·부채를 취득·처분으로 처리되는 경우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방법 규정
- (원칙) 처분구성기업의 소재지에서 소유지분의 이전을 과세 하고 구성기업간 자산·부채의 취득·처분은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에 반영
 - (특례) 구성기업간의 자산·부채 이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글로벌최저한세 조직재편에 해당 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과세이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input type="checkbox"/> 글로벌최저한세 조직재편 요건(❶-❸ 모두 갖출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❶ 이전 대가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이 취득구성기업 또는 취득구성기업 특수관계자의 출자지분 ❷ 처분구성기업 처분손익 전부 또는 일부 비과세 ❸ 취득구성기업 과세소득 계산시, 처분구성기업의 장부가액 사용 <p>※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합병(§44), 적격분할(§46), 조직변경(§78)은 글로벌최저한세 조직재편에 해당</p> <p><input type="checkbox"/> 비적격처분손익*은 취득·처분구성기업의 글로벌 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에 포함(과세이연 대상에서 제외)</p> <p>* ❶-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조직재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분손익) 처분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과세되는 처분손익과 회계상 처분손익 중 작은 금액 ○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분구성기업) 처분손익 포함 - (취득구성기업) 처분구성기업의 장부가액에 처분손익 조정

⑥ 공동기업의 범위(국조령 § 152 신설)

< 법 개정내용(§77①) >

- ☐ 공동기업* 특례 주요 내용 정의
- * 최종모기업이 50%이상의 소유지분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기업으로 최종 모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해당 기업에 대해 지분법 회계처리를 사용하는 기업
- 공동기업·공동기업자회사의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구체화
 - 공동기업·공동기업자회사는 별도의 다국적기업그룹(공동기업 그룹)의 구성기업으로 보아 실효세율 계산
 - 공동기업그룹 저율과세 시 그 모기업은 소득산입규칙 및 소득산입보완규칙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input type="checkbox"/> (공동기업) ①~⑤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p> <p>①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p> <p>② 당연제외기업*</p> <p>*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최종모기업인 투자펀드, 최종모기업인 부동산투자기구</p> <p>③ 제외기업이 직접 소유하고 있는 기업*</p> <p>* 전적으로 제외기업을 위해 자산보유·자금투자하거나, 제외기업의 부수적 활동을 수행, 또는 소득의 전부가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 시 제외되는 배당·지분손익인 기업</p> <p>④ 제외기업으로만 구성된 다국적기업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p> <p>⑤ 공동기업자회사</p> <p><input type="checkbox"/> (공동기업자회사) 인정회계기준*에 따라 공동 기업에 연결하거나 연결될 수 있는 기업</p> <p>* 공인회계기구에서 승인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p> <p><input type="checkbox"/> (추가세액 배분) 소득산입규칙 적용 후 소득산입 보완규칙 적용</p> <p>① (소득산입규칙) 공동기업그룹 구성원의 추가세액은 소득산입규칙에 따라 해당 모기업에 배분</p> <p>② (소득산입보완규칙) 소득산입규칙에 따라 배분한 후 남은 금액*은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라 배분</p> <p>* 공동기업그룹 구성원의 추가세액 중 최종모기업에 대한 추가 세액 배분액의 합계액에서 소득산입규칙에 의해 각 모기업에 배분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p>

⑦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의 성립요건 및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방법(국조령 §153 신설)

< 법 개정내용(§77②) >

- ☐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 규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일그룹으로 취급하여 글로벌최저한세 규정을 적용
 -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의 성립요건인 결합구조약정* 및 이중상장약정**은 대통령령에서 구체화
 - * 2개의 증권을 결합(staple)하여 각각의 증권을 동시에만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개별 증권의 권리·의무는 유지
 - ** 두 법인이 법적 동등화(equalization) 합의를 통해 하나의 운영 사업체로 기능하나 별도의 법적 독자성 보유, 별도 상장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input type="checkbox"/>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적용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그룹·기업은 하나의 다국적기업그룹으로 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에 의해 지배·연결되는 기업(제외기업이 아닐 것)은 구성기업으로 취급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는 각 최종모기업이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을 구성하는 각 그룹 정보 포함 <p>□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 각 최종모기업 간에 ①·②중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이 체결되었을 것</p> <p>① (결합구조약정)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모기업 간 50%이상의 소유지분이 결합되어 독립적 이전·거래불가할 것 - 결합된 소유지분이 상장된 경우, 단일가격으로 호가될 것 -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해 하나의 연결 재무제표가 작성되고 외부감사를 받을 것 <p>② (이중상장약정)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모기업 간 사업결합에 합의(계약) 할 것 - 배당·청산 시 주주에게 고정비율로 분배할 것 -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관리될 것 - 최종모기업의 각 소유지분이 서로 다른 자본시장 에서 독립적으로 호가, 거래·이전 될 것 -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해 하나의 연결 재무제표가 작성되고 외부감사를 받을 것
--	---

⑧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 특례(국조령 § 154 신설)

< 법 개정내용(§77③) >

-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산정방법
-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 산정시 주주에게 귀속되는 금액 만큼 차감
 -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차감하는 소유지분에 대한 귀속 소득의 구체적 요건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 ①~③중 하나를 만족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은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차감</p> <p>* 이 경우, 대상조세도 차감비율만큼 감액</p> <p>① 귀속소득과 관련하여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p> <p>②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의 거주자로 5% 이하의 지분을 직접 보유한 자연인</p> <p>③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의 거주자로 5% 이하의 지분을 직접 보유한 정부 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p> <p>□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투시과세 구조를 통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사업장인 경우에도 특례규정(국조법§77③) 적용</p>

⑨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최종모기업(국조령 § 155 신설)

< 법 개정내용(§77④) >

- ☐ 배당공제제도 적용시 최종모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배당액 차감(단,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분배된 것)
- 제도정의, 공제가능배당액의 구체적인 요건은 대통령령 에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input type="checkbox"/> 배당공제제도의 정의 및 공제가능배당액의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당공제제도) 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을 배당 지급기업의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주주에 과세 ○ (공제가능배당액) 최종모기업의 배당과 관련하여 요건(①~③중 하나)을 충족하는 경우 최종모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차감 <p>* 이 경우, 대상조세도 차감비율만큼 감액</p> <p>① 배당과 관련하여 최저한세를 이상으로 과세되거나, 배당수취인이 자연인으로 협동조합의 이용고배당*</p> <p>* 이용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배당</p> <p>② 배당수취인이 해당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의 거주자로 5% 이하의 지분을 보유한 자연인</p> <p>③ 배당수취인이 해당 최종모기업의 소재지국에서 설립·운영되는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연금서비스기업 제외)</p> <p><input type="checkbox"/>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최종모기업이 배당공제 제도를 적용받는 구성기업*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도 특례규정(국조법§77④)을 적용</p> <p>* 해당 최종모기업과 같은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함</p>

⑩ 적격분배과세제도에 대한 특례(국조령 § 156 신설)

< 법 개정내용(§78) >

- ☐ 적격분배과세제도 적용 시 실효세율 계산 특례 규정
- 최저한세율 도달에 필요한 금액만큼의 간주분배 세액을 조정대상조세에 가산하고 4년내 미분배시 다시 감액하여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 재계산
 - 적격분배과세제도 및 간주분배세액의 구체적 요건, 이탈 등에 따른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 에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input type="checkbox"/> 적격분배과세제도 및 간주분배세액의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격분배과세제도) 이익의 분배 시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21.7.1일 이전부터



	<p>시행되었을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주분배세액) 일정금액*을 조정대상조세에 가산 하고 4년 내 미분배시 가산한 사업연도의 조정대상 조세를 차감하여 실효세율·추가세액 재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② 중 작은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해당 사업연도에 해당 국가의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에 도달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정대상조세 금액 * ② 해당국가의 모든 구성기업이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적격분배과세제도 대상 소득의 전부 분배 시 발생할 법인세액 ○ 각 사업연도별로 간주분배세액을 간주분배세액 환입계정으로 설정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정잔액은 분배금액*·결손** 등을 고려하여 차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간주분배와 관련하여 납부한 세액 **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 발생시 해당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한 금액 - 계정이 설정된 사업연도 이후 4번째 사업연도의 종료일에 잔액이 있는 경우 → 해당 세액을 가산한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서 차감 ○ 적격분배과세제도 특례조항(국조법§78)은 매년 선택사항이며, 국가별로 적용 <p>□ 이탈등에 따른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계산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룹에서 이탈하거나 자산·부채의 대부분을 다른 구성기업에게 이전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격분배과세제도 특례(국조법§78) 적용 국가는 간주 분배세액환입계정의 잔액만큼 조정대상조세를 감액하여 실효세율·추가세액을 재계산
--	--

⑪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국조령 §157 신설)

< 법 개정내용(§79①) >

□ 투자구성기업의 계산 특례*

* ①개별계산, ②투시과세처리, ③과세분배방식 중 선택 가능

- 투자구성기업의 실효세율을 개별계산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 개별계산시 실효세율·추가세액 계산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의 계산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frac{\text{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text{투자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 = \frac{\text{각 투자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합계}}{\text{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합계}}$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최저한세 소득배분액에 귀속되는 조정대상조세(국조법§67) 및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조정대상조세 배분액(국조법§69) ** 해당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 투시과세처리(국조법§79⑤) 또는 과세분배방식(국조법§79⑥)이 적용되지 않는 최종모기업의 소유 지분에 해당 하는 소득산입비율(조정소득산입비율)을 곱하여 계산 *** 해당 글로벌최저한세결손에 조정소득산입비율을 곱하여 계산 ○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 계산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p> $= (A \times B) + C - D$ <p>A: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비율 B: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초과이익 금액 C: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 D: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적격소재국추가세액</p> </div> <p>○ 투자구성기업에 대해 소득산입규칙 적용 시 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 배분비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모기업) 투자구성기업 추가세액의 전액을 배분 (배분비율: 1) - (최종모기업 아닌 모기업) 해당 모기업을 통한 최종모기업의 간접소유에 따른 소득산입비율을 조정소득산입비율로 나눈값을 추가세액에 적용
--	--

⑫ 투시과세기업 취급 선택(국조령 § 158 신설)

< 법 개정내용(§79⑤) >

- ☐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이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과세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투시과세기업으로 보아 글로벌최저한세 적용가능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input type="checkbox"/> 주주구성기업이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과세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이 그 소재지국에서 해당 소유지분의 연간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이익에 대해 최저한세를 이상으로 과세 ○ 구성기업이 직접 소유한 투자구성기업을 통해 다른 투자구성기업을 간접 소유한 경우에도 적용* <p>* 직접 소유지분에 대해 공정가치 과세되면 간접 소유지분에 대해서도 공정가치 과세를 적용받는 것으로 간주</p> <p><input type="checkbox"/> 5년선택 사항으로 주주구성기업별로 적용하되, 투자구성기업의 소유지분 전부에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택 취소 시,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 계산할 때 자산·부채의 처분손익은 취소사업연도 개시일의 공정가치를 기초로 계산

⑬ 과세분배방법 적용 선택(국조령 § 159 신설)

< 법 개정내용(§79⑥) >

- ☐ 주주구성기업이 투자구성기업으로부터 분배에 대해 최저한 세율(15%) 이상 과세될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분배 방식 선택 가능
- ❶ 분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주주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 포함하고, 투자구성기업에서는 제외
 - ❷ 4년 이내 분배 되지 않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주주구성기업 귀속금액에 대해 투자구성기업에 15%로 과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input type="checkbox"/> 분배금에 해당하여 주주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에 포함하는 금액: 투자구성기업 이익·잉여금 분배 등</p> <p><input type="checkbox"/> (미분배 글로벌최저한세소득)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①~③을 차감하여 계산</p> <p>① 투자구성기업의 대상조세 금액</p> <p>② 4년 이내 주주구성기업에 분배한 금액</p> <p>③ 4년 이내 투자구성기업의 결손 금액</p> <p><input type="checkbox"/> 투자구성기업의 납부세액 중 주주구성기업이 받은 분배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세액에서 공제되는 경우</p> <p>○ 주주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과 조정대상 조세에 각각 산입하여 공제 전으로 조정(Gross-up)</p> <p><input type="checkbox"/> 5년선택 사항으로 주주구성기업별로 적용하되, 투자구성기업의 소유지분 전부에 적용</p> <p><input type="checkbox"/> 선택이 취소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말 미분배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에 최저한세를 곱한 금액을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으로 간주</p>

⑭ 전환기적용면제(국조령 § 160 신설)

< 법 개정내용(§80) >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용면제 요건을 갖춘 국가에 대해서는 구성기업 선택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간주
- 다만, 요건의 충족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적용 불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input type="checkbox"/> (전환기*적용면제 요건) 국가별보고서를 기준**으로 ①~③중 하나를 충족 시</p> <p>* 개시일이 '26.12.31일 이전이고, 종료일이 '28.6.30일 이전</p> <p>** 공동기업·공동기업자회사의 경우에는 별도재무제표 기준</p> <p>① (소액 요건) 매출액과 세전이익이 각각 1천만유로, 1백만유로 미만</p> <p>② (간이실효세율 요건) 실효세율이 일정률* 이상</p> <p>* 사업연도 개시일 기준 '24년: 15%, '25년: 16%, '26년: 17%</p> <p>③ (초과이익 요건) 세전손실이거나, 세전이익이 실질기반제외소득 이하</p> <p><input type="checkbox"/> 전환기적용면제의 요건 적용 시 세부규정</p> <p>○ (최종모기업인 투과기업) 지분의 전부가 국조령 §154①에 따른 소유자에 의해 보유되는 경우 적용</p> <p>○ (배당공제제도 적용 최종모기업) 공제가능배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별보고서에 투자구성기업, 해당 기업의 주주 구성기업이 포함된 경우의 적용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구성기업) 매출액, 세전손익, 법인세 미고려 - (주주구성기업) 직접보유비율 만큼 고려 ○ 소유지분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순손실 금액이 5천만유로 초과 시 세전 손익에서 제외 <p><input type="checkbox"/> 전환기적용면제는 아래(①~④)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무국적구성기업 ② 하나의 국가별보고서에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 그룹에 관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지 않은 경우 ③ 적격분배과세제도에 따른 선택이 적용되는 국가 ④ 전환기적용면제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국가의 그 이후 전환기사업연도 <p><input type="checkbox"/> 과세당국이 적용면제와 관련하여 요구한 소명*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환기적용면제 미적용</p> <p>* 실효세율이 15%보다 낮아 우리나라가 추가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당국은 신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36개월 이내 통보하고, 기업은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소명
--	--

⑮ 최초적용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산정(국조령 §161 신설)

< 법 개정내용(§81②) >

- ☐ 최초적용연도에는 총이연법인세조정규정(§67)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상 계상된 모든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반영하되,
-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산정 등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input type="checkbox"/> 최초적용연도에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인식하는 경우 국내세율과 최저한세율 중 낮은 세율로 반영</p> <p>*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국내세율로 반영한 이연법인세자산이 글로벌최저한세결손에 따른 경우에는 최저한세율로 반영</p> <p><input type="checkbox"/> 최초적용·이후사업연도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계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사용세액공제도 최저한세율로 이연법인세자산 반영 ○ 최초적용연도 이전에 발생한 비적격환급가능세액 공제를 세액공제 받는 경우 대상조세에서 미차감 ○ 최초적용연도에 반영한 이연법인세부채는 국조법 §67③* 미적용 <p>* 이연법인세부채 발생일부터 5년이 되는 사업연도까지 미납 시 →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상조세에서 차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계상 기준의 미충족으로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못한 이연법인세자산도 최초적용연도에 반영 가능
	<p><input type="checkbox"/> 최초적용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산정 관련 특정기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 자산의 처리</p> <p>* 2021년 12월 1일부터 최초적용연도 개시일의 전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기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자산 중 글로벌 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대한 부분은 미계상 해당기간에 구성기업간 자산이전*시 장부가액 적용 할 경우 → 세무상가액과의 차이에 따라 발생한 이연법인세자산은 최초적용·이후사업연도에 반영 <p>* 재고자산 제외</p>

⑯ 해외진출초기 다국적기업그룹의 요건(국조령 §162 신설)

< 법 개정내용(§82①)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진출 초기단계 다국적기업그룹은 5년간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 면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input type="checkbox"/> 해외진출초기 다국적기업그룹 요건(①·②모두 충족)</p> <p>① 6개국 이하의 국가에 소재</p> <p>* 무국적구성기업은 소재하는 국가가 없는 것으로 간주</p> <p>②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이 가장 큰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유형자산 합계가 5천만유로 이하</p> <p>* 무국적구성기업의 유형자산 장부가액도 포함하여 계산</p>

(5) 신고 및 납부 등

①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세무사항(국조령 §163 신설)

< 법 개정내용(§83①) >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

* 최초적용연도의 경우 18개월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input type="checkbox"/> 신고서는 연결재무제표의 표시통화로 작성하며, 추가세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구성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납세자번호, 소재지국, 기업지위(최종모기업 등) 등 기본사항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국적구성기업 포함 ○ 다국적기업그룹의 지배구조, 지분에 관한 사항 ○ 국가별 실효세율, 소득산입규칙·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 등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 ○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관한 사항 * 매년선택, 5년선택
-------	---

②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기업(국조령 §164 신설)

< 법 개정내용(§83②③) >

-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구성 기업(지정국내기업)이 대신 제출 가능
- ☐ 국외구성기업이 해당 소재지국의 과세당국에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국내구성 기업은 제출의무 면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지정국내기업)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 하거나, 국내구성기업들에 의해 지정된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국내기업에는 신고서 제출의무, 국외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의 제출의무가 부여 <input type="checkbox"/> 자동정보교환 약정이 발효 중인 국가에 소재하는 최종모기업 또는 지정신고기업이 해당 소재지국에 신고서 제출하는 경우 → 국내기업 제출의무 면제

③ 신고 및 납부와 환율의 적용(국조령 §165 신설)

< 법 개정내용(§84①②③) >

- ☐ (신고) 추가세액배분액을 국내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
 - (환산) 원화 환산에 사용되는 환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 (납부) 추가세액배분액을 국내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
 - (분납)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내 분납 가능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신고) 추가세액신고서* 제출



	<p>* 시행규칙으로 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산) 해당 사업연도의 평균환율 적용 <p>□ (납부) 한국은행·채신관서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첨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납) 법인세법 시행령(§101②)* 준용 <p>* 분납가능한 세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
--	--

④ 과세당국의 수시부과 및 결정·경정(국조령 §166 신설)

< 법 개정내용(§85⑤⑧) >

- 과세당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추가세액배분액을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시부과 가능
- 추가세액배분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기업에 통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 수시부과가 가능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하지 않고 본점 등을 이전한 경우 ○ 사업부진 등의 이유로 휴·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p>□ 추가세액배분액의 결정·경정시 통지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세액배분액의 계산명세를 첨부하여 고지하며,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시송달함

⑤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국조령 §167)

< 법 개정내용(§87①③) >

- 과태료 부과 대상 추가(부과·징수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
 - 해외구성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그 소재지국에 제출하였다는 사실 등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제출의무를 불이행 하는 경우의 과태료 부과·징수금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87조제1항제3호의 글로벌 최저한세정보신고서: 1억원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87조제1항제3호의 신고의무에 따른 신고서: 1억원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 금융감독원, 2023. 11

<주요 내용>

- ◆ (평가·보고 기준) 기업의 책임의식 제고 및 제도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율규정으로 운영하던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규정화하고, 주요 용어, 서식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 '24.1.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기준 이관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자 1년간은 상장협의 모범규준 적용도 가능합니다.
- ◆ (산업전문성 기준) 상장회사가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산업의 전문성을 갖춘 감사인력을 지정하기 위해 관련 요구절차* 및 산업전문성 분류기준** 등을 마련했습니다.
 - * 산업전문성 산업(11개), 회사가 산업전문성 필요 여부를 지정기초자료 신고서에 기재 등
 - ** 최근 10년 이내 관련 산업에 속한 기업의 감사·비감사용역을 200시간 이상 제공한 자 등
 -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주주산업, 금융업(총 4개)은 '24년부터 적용하되, 다른 산업(총 7개)은 '25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 (기대효과)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을 규정화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산업전문성을 갖춘 감사인 지정으로 감사품질 제고와 효율적인 감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I 개 요

- 금융감독원은 외감제도 보완방안*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이하 '시행세칙')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보고 기준 및 지정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기준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 '22.10.5.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 '23.6.12.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1차 개정 : '23.5.2., 2차 개정 : '23.9.14.



II

주요 개정내용

1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 마련

◆ 기업의 책임의식 제고 및 제도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과 이를 인용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 ☐ (기존 모범규준을 준거) 기존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제정·운영하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을 준거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절차에 맞게 구성하였습니다.
-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 주요 내용)
 - ① 회사의 대표이사(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의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한 뒤 미비점에 대한 평가 및 조치 후 운영실태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이사회·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의 감사(위원회)는 경영진과 독립적인 입장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에 담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미비점이나 취약점을 시정시켜야 합니다.
- ☐ (기타 개선 사항) 주요 용어*를 새롭게 정의·정비하여 평가·보고기준 총칙에 반영하고, 실무상 해석에 이견이 많았던 평가 대상 사업단위를 명료하게 규정**하였습니다.
 - * 핵심통제, 통제위험, 통제실패위험, 독립적인 평가, 상시적인 모니터링, 변화관리체계 등 20개를 총칙 문단2에 일괄 규정
 - ** 평가대상 사업단위 제외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제외 사업단위의 부문정보를 운영실태보고서에 공시함에 있어 영업이익 정보를 제외(평가·보고기준 문단 14)
 - ※ 기존에 문의가 많았던 내용(FAQ)은 가이드라인에 반영하고 명확한 설명과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
- ☐ (운영실태·평가보고서 서식 정비) 운영실태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추가로 규정화*하고, 보고서 서식 등을 개선하여 가이드라인에 구체적인 양식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 중요 취약점 관련 시정조치 계획에 감리 관련 시정조치 계획 포함(평가·보고기준 문단 25사. 단서 신설)
- ☐ (시행시기) 새로운 평가·보고기준은 '24.1.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 다만, 이관에 따른 시장 혼란 방지를 위해 '24.1.1일 이후 시작되는 1개 사업연도에 한해 현행 준거기준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모범규준에 따른 평가 및 보고 수행이 가능합니다.

2 상장사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기준 마련

◆상장회사가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산업의 전문성을 갖춘 감사인력을 지정하기 위해 산업전문성 요구절차 및 분류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산업 분류) 상장회사 및 회계법인 의견을 반영하여 금융업, 수주산업 등 11개의 산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의 대분류 및 중분류 기준)을 산업전문성이 필요한 산업으로 정하였습니다.

구분	산업 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제10차 기준)
가.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소분류 201(기초화학물질제조업), 192(석유정제품제조업)
나.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중분류 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다.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대분류 D(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라.	건설업 등 수주산업	·대분류 F(건설업), ·소분류 311(선박 및 보트건조업), 312(철도장비제조업), 313(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제조업)
마.	운수 및 창고업	·대분류 H(운수 및 창고업)
바.	통신, 엔터테인먼트, 방송업	·중분류 59(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60(방송업), 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소분류 612(전기통신업), 631(자료 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사.	소프트웨어개발업	·소분류 582(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아.	은행 및 저축 은행업	·소분류 641(은행 및 저축기관)
자.	보험업	·소분류 651(보험업), 652(재보험업)
차.	자본시장 등 기타금융업	·소분류 642(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661(금융 지원 서비스업), 649(기타금융업)
카.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대분류 M 중 중분류 71(전문서비스업) 제외 ·중분류 중 73(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제외하나 소분류 739(그외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는 포함

※ 자세한 내용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참조

□ (시행시기) 회계법인의 산업전문인력 확보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업 분류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 (24년 1월 1일부터 적용) ❶건설업 등 수주산업, ❷은행 및 저축은행업, ❸보험업, ❹자본시장 등 기타금융업
- (25년 1월 1일부터 적용) ❶기초화학물질 제조업, ❷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❸전



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④운수 및 창고업, ⑤통신·엔터테인먼트·방송업·게임업, ⑥소프트웨어 개발업, ⑦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산업전문성 요구절차) 상기 산업을 영위하는 상장회사는 지정 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정기초자료 신고서에 산업전문성 필요 여부를 기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 ☐ (지정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기준) 감사팀 내 산업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산업전문가*의 분류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 최근 10년 이내 관련 산업 내 기업에 감사·비감사용역을 20시간 이상 제공한 자, 최근 3년 이내 관련 산업협회 등에서 주관하는 산업교육 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등

3 외부감사규정 개정사항 적용을 위한 관련 서식 개정

- ☐ (재무기준* 수치 산정 재무제표 변경) 외감규정(§12③)의 개정으로 수치 산정 재무제표가 변경(연결→별도)됨에 따라 지정기초자료 신고서를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 ①3년연속 영업손실 또는 ②3년연속 부(-)의 영업현금흐름 또는 ③3년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
- ☐ (경력기간별 공인회계사 점수 변경) 변경된 경력기간별 점수를 지정기초자료 신고서의 서식에 반영하였습니다.

4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점검보고서 개정

- ☐ 실효성 있는 등록요건 유지의무 점검을 위해 점검보고서에 대표이사 서명란 등을 추가하고, 사후심리 점검방법을 보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

- ☐ 외감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은 11.15.(수)부터 12.5.(화)까지 사전예고를 실시하고, 이후 연내 시행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